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유입인프라조성(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고용장려금사업/고용안정형
- 소관부처/담당부서 : 중소기업부/인력육성과
- '21년 평가등급 : 양호

1 사업 주요 내용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 및 우수인력 유입
- (사업내용) 청년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5년 만기시 적립금 전액(3천만원)을 청년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사업

* (공제적립금, 만원) 청년근로자 720(월 12)+기업 1,200(월 20)+정부 1,080(3년, 7회)

□ 예산 및 재원: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B)	증감(B-A)	
	본예산 (A)	추경	결산			(%)
□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292,791	240,391	240,391 (100%)	314,934	22,143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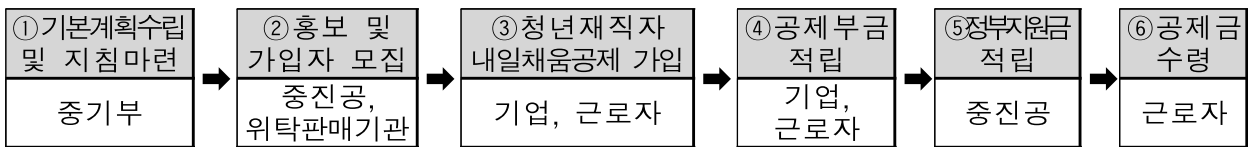
□ 추진근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 주요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15~34세 이하)

□ 전달체계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 (가입대상 확대) 가입대상에 기존 가입 제한업종인 부동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 근로자 포함(하반기)
- (근로자 차등납부 도입) 청년근로자의 경제적 여력과 개별 여건에 따라 월 적립금 연차별 차등납부를 허용
 - * 60개월 720만원 납입 : (기존) 월 12만 정액 → (개선) 월 8~16만 차등 납부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 근로자 현황

- (참여 근로자 수) '20년 기준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장려금을 최초 지원받은 근로자 수는 38,783명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전체 근로자 중 1.5%, 고용안정형 장려금을 지원받은 근로자 중 2.5%를 차지함.
- (성별) 남성 근로자의 지원 비중이 56.3%로 여성 근로자의 지원 비중 (43.7%)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전체 근로자 중 청년이 88.5%, 중년이 11.5%를 차지함.

〈표 1〉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참여 근로자 현황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고용장려금 전체	2,583,913 (100.0)	1,176,447 (45.5)	1,407,404 (54.5)	1,253,831 (48.5)	957,824 (37.1)	296,284 (11.5)	75,650 (2.9)
고용안정형 전체	1,544,811 (100.0)	642,233 (41.6)	902,516 (58.4)	797,478 (51.6)	504,824 (32.7)	191,128 (12.4)	51,137 (3.3)
인력유입 인프라조성	38,783 (100.0)	21,837 (56.3)	16,946 (43.7)	34,331 (88.5)	4,452 (11.5)	0 (0.0)	0 (0.0)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참여 사업장 현황

- (참여 사업장 수) '20년 기준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장려금을 최초 지원받은 사업장 수는 12,236개소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전체 사업장 중 3.6%를 차지하며, 고용안정형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 중 6.5%를 차지함.
- (규모별) 300인 미만 사업장(99.4%)이 대다수이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참여도(0.2%)는 매우 낮은 편임.
* 규모별, 산업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므로 각 비율의 합은 100%미만일 수 있음
- (산업별) 서비스업(62.3%)의 참여 비중이 높고, 제조업(29.4%) 및 건설업(7.5%)의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2〉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참여 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

유형	전체	규모별		산업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고용장려금 전체	336,601 (100.0)	333,357 (99.0)	2,258 (0.7)	64,040 (19.0)	8,350 (2.5)	262,195 (77.9)
고용안정형 전체	188,202 (100.0)	186,963 (99.3)	546 (0.3)	27,975 (14.9)	3,117 (1.7)	155,680 (82.7)
인력유입 인프라조성	12,336 (100.0)	12,158 (99.4)	20 (0.2)	3,595 (29.4)	917 (7.5)	7,624 (62.3)

주1: 규모별, 산업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므로 각 비율의 합은 100%미만일 수 있음

□ 정량지표별 결과

〈표 3〉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정량지표 결과

(단위: %)

	고용유지율 (6개월)	고용증감률 ¹⁾	기업생존률 ²⁾
고용장려금 전체	81.2	25.3	84.8
고용안정형 전체	86.5	/	84.6
인력유입인프라조성	96.0	/	87.9

주1: 고용증감율은 고용창출형과 고용유지형에서만 산출하며, 고용유지형은 종료 후 고용증감율로 산출

2: 기업생존률은 고용유지형과 고용안정형에서만 산출

3: 모성보호형은 고용유지율만 산출

□ 만족도 조사 결과

○ 항목별 만족도

〈표 4〉 인력유입인프라조성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관리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고용장려금 전체	4.20	4.19	4.19	4.36	4.21	4.17	4.05	4.16	4.28	4.16
고용안정 전체	4.23	4.21	4.20	4.34	4.20	4.19	4.12	4.14	4.29	4.17
인력유입인프라 조성(전체)	4.22	4.22	4.19	4.37	4.14	4.22	4.16	4.08	4.28	4.18
인력유입인프라 조성(참여자)	4.29	4.30	4.22	4.46	4.11	4.29	4.31	3.94	4.35	4.27
인력유입인프라 조성(참여기관)	4.14	4.13	4.16	4.27	4.17	4.14	4.02	4.21	4.20	4.09

주: 1)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2) 전반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절대적 만족도: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기대 대비 만족도

○ 만족/개선 항목 및 추천 의향

[그림 1] 인력유입인프라조성(전체) 만족/개선 항목 및 추천 의향



주: 1) 만족항목

- 전체: 지원대상(28.8) > 지도수준(16.9) > 지도/관리(10.3) > 지원기간(9.8) > 신청절차(9.1) ; 없음(25.1)
- 안정: 지원대상(30.5) > 지원수준(17.0) > 지도/관리(10.3) > 지원기간(9.9) > 신청절차(9.4) ; 없음(22.9)

2) 개선항목

- 전체: 신청절차(8.6) > 지원기간(5.9) > 지원수준(4.8) > 지원대상(3.7) > 지도/관리(3.1) ; 없음(74.0)
- 안정: 신청절차(7.5) > 지원기간(6.8) > 지원수준(5.1) > 지원대상(3.9) > 지도/관리(3.3) ; 없음(73.5)

3) 추천 의향

전체: 4.29점, 추천(81.9=31.4+50.5) > 보통(15.4) > 비추천(2.7=2.1+0.6)

안정: 4.30점, 추천(82.2=31.2+51.0) > 보통(15.2) > 비추천(2.6=2.2+0.4)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사업의 중요성

- 본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청년 재직근로자와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의 중요성이 인정됨

- 임금격차 축소를 통한 인력난 해소라는 국정과제(41번)에 부합하고, 청년일자리대책(18년 3월) 및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19.2)에 포함된 사업임
- 중소·중견기업 청년 재직자의 자산형성에 기여하여 장기근속 유도에 기여하고 있음

* 가입기업의 70.5%가 채용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안내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일자리사업 성과

- 기업의 부담금이 있음에도 중소·중견기업 인력유입과 청년 재직자의 장기근속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 및 공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부담금을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장기 재직 지원
 - * 20년말 60천개사, 164천명에 대한 장기재직 지원으로 목표 대비 107% 초과달성
 - 중도해지율은 18% 내외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 청년근로자에 비해 고용유지 및 장기근속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
 - * 20년 고용유지율은 6개월 96.0%로 다른 사업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편

□ 운영의 적절성

-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업환경이 어려워져 지원이 다소 감소했으나, 본 사업의 예산과 사업계획에 대비할 때 양호하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됨
 - 목표 인원이 정해져 있고 재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 방식으로 선발됨에 따라 예산집행이 상대적으로 양호
 - '20년 말 예산집행률은 100% 달성했으나,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가입목표 감소에서 기인
- 기업 부담금이 있고 5년 장기 가입 기간으로 가입유치에 어려운 점이 있어도 사업성고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인정됨
- 지역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지자체 및 공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공제가입 중소기업의 부담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인정됨
 - * 지자체 17개, 공기업 18개, 민간기업 3개소에서 2,966개사 소속 6,461명 지원

□ 제도개선 노력

- 가입대상 확대 및 부담금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인정됨
 - 관련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부동산업 종사자 등으로 가입 대상 확대('20년 10월)
 -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기여금 납입이 1년 유예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초기 납입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차별 차등납부가 개선하도록 제도개선 노력이 있었음